

A Grounded Theory Study of Parenting Efficacy among Mothers who Adopted Children due to Infertility

난임으로 인해 자녀를 입양한 어머니들의 양육 효능감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Sun Kyung Lee¹, On Ju Jung², Yun Yeong Kwak³, Jae Woo Park⁴

이선경¹, 정은주²,곽윤영³, 박재우⁴

¹ Graduate School Student, Dept. of social welfare, Soongsil University, Korea, sunkee10@naver.com

² Graduate School Student, Dept. of social welfare, Soongsil University, Korea, jochung73@naver.com

³ Graduate School Student,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Korea, varmouth@naver.com

⁴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Korea, thanotos@kcgu.ac.kr

Corresponding author: Jae Woo Park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of parenting efficacy of mothers who adopted children because of infertility by applying the grounded theory method. For this stud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mothers who adopted children because of infertility, and data saturation occurred from the sixth interview, and a total of seven interviews were analyzed. A total of 16 concepts, 7 subcategories, and 4 categories were derived from the open coding process. At the category level, three categories were identified as common to both adoptive and non-adoptive parents: 'Stability and communication', 'Affection and resources', and 'Learning instructions', and the category 'Adoption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was identified as an adoption-specific category. At the subcategory level, psychological stability and communication were identified as subcategories within the 'stability and communication' category; affectionate expression and resources were identified as subcategories within the 'affection and resources' category; affectionate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economic resources were identified as subcategories within the 'guidance learning' category; guidance learning was identified as a subcategory within the 'adoption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category; and adoption communication and biological parent interaction subcategories were identified as subcategories within the 'adoption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category. Listing the identified concepts affecting parenting efficacy resulted in 16 concepts: acceptance of children's feelings, parental emotional stability, parental self-recovery,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respect for children's opinions, expressing affection for children, showing affection through food, flexibility, responsibility, learning parenting guidelines, communicating adoption facts, interacting with adoptive families, communicating biological parent information, and education about biological parent interaction. The results were subjected to a paradigmatic analysi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to increase the parenting efficacy of infertile adoptive parents were discussed.

*1 and 2 are co-first authors and contributed equally to this paper.

Received: February 07, 2023; 1st Review Result: March 23, 2023; 2nd Review Result: April 19, 2023

Accepted: May 31, 2023

Keywords: Infertility Adoption, Grounded Theory, Parenting Efficacy, Qualitative Analysis

요약: 본 연구는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여 난임으로 자녀를 입양한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난임 입양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6번째 인터뷰부터 자료포화가 나타나 총 7건의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였다. 개방코딩 과정에서 총 16개의 개념과 7개의 하위 범주, 4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범주 수준에서 먼저 살펴보면, 입양 부모와 비입양 부모의 공통 범주로 ‘안정과 소통’, ‘애정 표현과 자원’ 및 ‘지침 학습’의 세 개의 범주가 확인되었으며 입양 특수 범주로 ‘입양 소통과 교류’ 범주가 확인되었다. 하위 범주 수준에서 살펴보면 ‘안정과 소통’ 범주를 구성하는 하위 범주로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이 확인되었으며 ‘애정 표현과 자원’ 범주를 구성하는 하위 범주로 애정 표현, 심리적 경제적 자원이 확인되었고 ‘지침 학습’ 범주를 구성하는 하위 범주는 지침 학습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입양 소통과 교류’ 범주를 구성하는 하위 범주로 입양 소통과 생부모 교류 하위 범주가 확인되었다. 확인된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개념들을 나열하면 자녀의 감정 수용, 부모의 정서적 안정, 부모의 자기 회복, 부모 간의 의사소통, 자녀의 의견 존중, 자녀에 대한 애정 표현, 음식을 통한 애정 전달, 유연성, 책임감, 육아 지침의 학습, 입양 사실 소통, 입양 가족과의 교류, 생부모 정보 전달, 생부모 교류 관련 교육의 16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결과에 대해 패러다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난임 입양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핵심어: 난임 입양, 근거이론, 양육 효능감, 질적분석

1. 서론

입양은 출산이 아닌 방법을 통해 새 가족이 구성되는 사회적·법적 과정으로, 아동과 생부모 간 관계를 단절하고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새 부모-자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1]. 이에 입양이 성립되면 아동에 대한 친생부모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완전히 소멸되고 입양아동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입양부모에게로 옮겨지며 아동은 입양부모의 완전한 자녀가 된다[2].

2018년도의 한 조사에 의하면 입양에는 난임으로 입양을 하는 무자녀 입양건수가 60.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3]. Brodzinsky와 Rosenberg에 의하면 난임은 입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으며, 친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뿐 아니라 친생자녀를 가질 수 없는 부모나 입양을 통해 자녀를 더 갖기 원하는 부모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4].

이렇듯 난임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입양부모는 자녀를 입양함으로써 완성된 가족을 형성했다는 기쁨과 의미를 갖는 동시에 새로운 자녀의 존재로 인해 기존의 익숙했던 삶이 달라지며 새롭고 낯선 삶에 대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되기도 한다[5]. 또한 입양가족은 혈연이라는 끈끈한 끈이 없기 때문에 때때로 사회나 확대가족의 인정을 받기가 어렵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입양부모는 친생부모와 함께 부모라는 자리를 나누어야 함으로 인해 ‘단 하나의 부모’로서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감에 불안해하기도 한다. 특히 난임입양부모의 자녀양육은 생물학적 부모에 비해 더 어려움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고 이는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난임 입양부모는 자신들이 직면하게 될 입양아동 양육과 관련된 어려움의 성격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6].

박영호와 신동면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역할에 대한 불명확성’37.7%, ‘아동의 부적응 우려’33.8%가 입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답한 것을 보면 부모로서의 역할에 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잠재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7]. 기존의 국내 입양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입양사실 공개에 관한 연구[5], 입양 편견에 대한 연구[8], 입양가족지원 및 입양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사후서비스 이용경험에 관한 연구[9], 양육과 적응을 주제로 한 연구[10], 입양 활성화와 실태파악, 입양 제도에 관한 연구[11], 입양아동과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12], 입양부모가 겪는 갈등 및 사회적지지와 부모역할 수행자신감, 가족적응력에 관한 연구[13], 국내입양부모교육에 관한 방안 고찰[14] 등이 있다.

난임 때문에 첫 아이 혹은 첫 아이를 포함한 다른 모든 아이를 입양을 통해 자녀로 삼은 부모는 처음부터 부모 역할에 혼란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점은 생물학적 부모가 아니라는 생각에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연구들 가운데 난임입양부모에 관한 연구는 입양과 관련된 입양모의 심리적 문제를 다룬 연구와 불임여성의 입양경험 자체에 대한 연구[15]만 있을 뿐 난임입양부모의 양육 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난임 입양 부모의 양육 효능감 요인을 파악하여 난임 입양 부모의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난임입양부모의 양육 효능감

양육 효능감은 부모의 인지적 특성 중 하나로 Bandura의 ‘자기효능감’ 개념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학자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자신이 부모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와 대체로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을 의미한다. 양육 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수용적 양육행동과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좀 더 원활하게 이끄는 경향이 있으나, 양육 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는 강압적이며 체벌적인 양육행동과 아동 학대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

김민정의 연구에 따르면 위탁부모의 경우에 전반적 양육 효능감과 의사 소통능력에 대한 효능감이 높을수록 온정·수용적 양육 행동을 보이며 전반적 양육 효능감이 높을수록 거부·제재적 양육 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사회적 지원 하위 영역들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양육에 관한 정신적·물질적 도움이 양육 효능감 향상에 기여한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난임입양모들은 입양을 결정하고 입양자녀를 맞이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경험과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은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난임입양부모는 입양가족모임과 사후서비스를 통해 양육 효능감을 증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고 있으나 난임 입양부모의 양육 효능감이 저하되어 이에 대한 교육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어떠한 때인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3. 연구방법

3.1 근거이론 접근

근거이론은 연구과정의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되고 체계적으로 분석된 자료에 기반한 이론을 의미한다. 이 접근법에서 자료의 분석은 개방형 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에 따라 진행된다. 개방 코딩은 개념이 파악되고 개념의 특성과 특징이 발견되는 과정을 말한다. 축코딩은 하위범주들을 범주로 연결하는 과정으로 코딩이 범주의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선택코딩은 이론을 통합하고 정제하면서 상세히 논술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질적 연구에서 내적 타당성과 신뢰성은 연구 참여자들의 선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내적 타당성과 신뢰성을 얻기 위해 연구자는 그 연구의 중심현상을 경험한 참여자를 포함해야 하며 그러한 참여자의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만 한다.

3.2 면접을 위한 구조화된 질문의 결정

연구 주제에 맞는 면담의 진행을 위해 3인의 연구자가 협의하여 질문들을 결정하였다. 한 명의 연구자는 상담학 부교수로 근거이론 분석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연구자였으며 두 명의 연구자는 난임 부모에 대한 교육과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 전공 박사과정 대학원생이었다. 상담학 관련 부교수인 연구자는 구조화된 면접 질문을 작성하고 감수하였으며 두 명의 박사과정 대학원생은 난임 부모 교육 경험을 살려 면접을 진행하였다. 기본 질문으로 입양아의 성별과 입양시의 아이 나이 등을 묻는 질문을 구성하였으며 도입 질문으로 입양 동기와 입양 시에 예상했던 어려움을 묻는 질문을 구성하였다. 여기에 차례로 기본 질문, 특화 질문, 추가 질문을 각각 네 개씩 구성하였으며 기본 질문 중 핵심적인 내용은 ‘어머니로서 양육에 자신감을 느낀 경우는 어떤 경우였습니까?’였다. 이 연구가 입양과 무관한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연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든 특화 질문들 중 핵심 내용은 ‘특히 입양 자녀의 어머니로서 양육에 자신감을 느낀 경우는 어떤 경우였습니까?’였다. 추가 질문 중 핵심 내용은 ‘입양을 장려하는 기관 등에서 입양 자녀의 효과적인 양육을 위해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점은 어떤 것입니까?’였으며 면접에 사용된 전체 질문 목록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3.3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 참여자는 난임으로 입양을 하여 자녀를 기르고 있는 어머니들로 연구 목적에 대한 안내와 서면 설명문 및 동의서를 읽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3.4 자료수집

자료는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수집하였다. 연구 목적을 위한 녹음에 동의한 연구 참여자들과 구조화된 면접을 60분~90분 진행하고 면접 결과를 녹음하였다. 녹음된 자료는 텍스트로 변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코딩 과정에서 자료의 포화가 나타나는 지를 확인하며 추가 면접을 진행해 나갔다. 추가 코드의 확인 없이 처음으로 기존

코드만으로 코드가 나타난 최초의 자료는 6번째 면접자의 자료부터였으며 7번째 면접자의 자료에서도 더 이상 새로운 코드가 확인되지 않아 자료포화가 나타났다고 보고 7번의 면접을 진행하고 자료 수집을 중단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기본 인적 사항 및 입양 정보

[Table 1] Basic Personal Information and Adoption Information of Study Participants

참여자	나이	직업	난임기간	입양자녀(첫째 기준)		
				입양자녀 수	입양 시 자녀연령	현재자녀 연령
1	44세	주부	2년	2	3개월	10세
2	47세	주부	8년	1	2개월	8세
3	44세	주부	5년	2	1세	12세
4	46세	회사원	10년	1	6개월	8세
5	52세	회사원	3년	2	1개월	17세
6	50세	주부	10년	2	5개월	9세
7	48세	자영업	8년	1	2개월	13세

3.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trauss와 Corbin이 제시한 근거이론 분석 방법을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되고 문서로 변환된 텍스트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접근법에서 자료의 분석은 개방형 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에 따라 진행되므로 이러한 방식을 따라 개방형, 코딩, 축코딩, 선택 코딩을 진행하였다.

3.6 윤리적 문제

윤리적 연구 수행을 통해 본 연구자가 속한 학교의 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여 통과(심의번호 22-4-S-01)하였다. 심의 요청서에는 전반적인 연구 윤리 규정을 지키겠다는 서약과 함께 구체적으로는 연구 참여자 정보의 비밀 유지, 자발적이고 강제성이 없는 상태에서의 서면 동의, 자료의 용도 제한, 익명성의 유지, 연구 종료 후 자료의 파기까지 관련된 윤리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분들의 인터뷰 시에 불편한 경험을 마주하게 될 경우의 대처 및 위험 요소의 명시, 연구 참여자의 권리와 혜택 등을 명시한 서면 동의를 연구 참여자 전원에게 받았으며 심의 요청서와 동의서 및 연구 설명서에 제시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또한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고 녹음을 진행하였으며 녹음된 내용을 글로 전사하는 과정도 연구자가 진행하여 불필요한 정보의 유출이나 비밀 보장의 예외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

3.7 연구의 엄격성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Guba가 제시한 네 가지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네 가지 원칙은 진실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이다[18]. 진실가치는 연구 과정에서 진실에 기반한 연구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 가치의 추구를 위해 연구자들은 안정된 상태에서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인터뷰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유도질문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사전에 결정된 질문을 위주로 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하였다. 또한 초기 결과가 도출된 후에는 각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결과를 공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적용성은 연구 참여자를 통해 발견한 사실이 다른 유사한 상황의 다른 대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원칙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에 참여한 7명 외에 연구참여자 외의 난임으로 입양을 한 어머니 2인을 확보하고 7명의 참여자의 인터뷰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 이 두 분 자신에게도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자의 분석 결과는 두 명의 난임 입양 어머니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일관성은 연구의 내용이 일관되고 견실한지에 대한 원칙으로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3명의 연구자가 협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초기 개방형 코딩의 분석 내용이 상당 부분 수정되어 통합될 수 있는 코드가 중복되게 분리 코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합의적 질적 연구에 준하는 각각의 분석과 합의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니며 한 명의 연구책임자가 분석한 내용을 상호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피드백 받고 반영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립성은 연구자의 편견과 선입견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 원칙을 추구하기 위해 유도 질문이 될 수 있는 추가 질문을 가급적 피하면서 구조화된 질문 목록에 명시된 질문에 집중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질문을 고수하는 과정에서 인터뷰가 부드럽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면접자와 피면접자의 신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4. 연구결과

4.1 개방코딩

난임으로 인해 입양을 진행하여 양육 중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하고 이를 텍스트 자료로 전사하여 원자료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근거 이론에 입각한 분석을 진행하여 16개의 개념과 7개의 하위 범주, 4개의 범주를 구성하였다[표 2]. 16개의 개념은 초기에 개방형 코딩을 진행한 결과를 평가 수정하여 살아남은 주제들이다. 하위 범주는 축코딩에 들어갈 작은 범주를 의미하며 범주들 사이의 논리적 흐름을 고려하여 패러다임 분석에 필요한 흐름을 제시하였다.

4.2 축코딩

개방형 코딩 후에 개념과 하위 범주를 수정 분석해 나가며 최종 결과를 완성하였다. 범주 분석까지 진행한 후에 범주 간의 논리적 흐름을 고려하여 배열한 패러다임 분석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축코딩은 Strauss에 따르면 개방 코딩을 초기에 분석하기 위한 축으로 개방 코딩을 대체하며 긴밀한 관계들을 가진 범주들을 묶어낸 것이다.

4.3 선택코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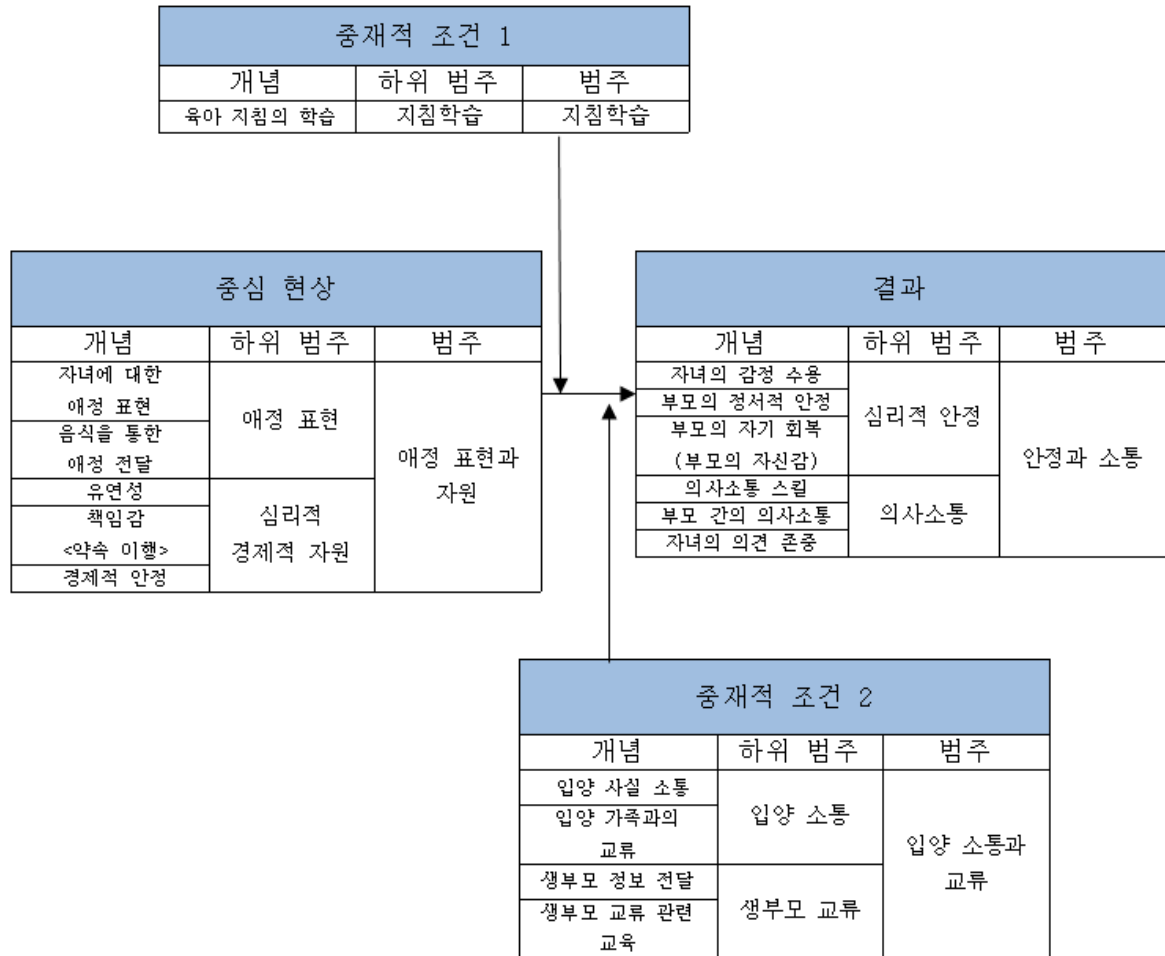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난임 입양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과 관련하여 애정 표현과 자원제공이라는 중심 현상은 안정과 소통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며 첫 번째 중재 조건으로 서적을 통해 양육 지침을 학습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두 번째 중재 조건으로는 입양 소통과 교류를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중재조건 1은 육아지침의 학습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지침학습 하위 범주, 다시 지침 학습 범주에 이르는 단일 개념으로 구성된 범주인데 이렇게 분석한 이유는 면접 시에 다양한 지침서를 읽음으로써 양육 효능감을 높여 왔다거나 그에 대한 필요성이 네 명의 연구참여자에서 확인이 되었으나 다른 개념들과는 효능감의 습득 경로 등에서 독특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하여 단일 개념으로 범주를 구성하게 되었다. 중재 조건 2는 양육과 어머니-입양 자녀 관계에서 안정과 소통을 가져오는 또 다른 하나의 중재 조건으로서 입양과 관련한 소통을 하는 것과 생부모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인이 확인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표 2] 근거 이론 분석 결과

[Table 2] the Results of Grounded Theory Analysis

대표적 인터뷰 내용 요약	연구 참여자							개념	하위범주	범주
	1	2	3	4	5	6	7			
그냥 아이는 가정이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입양은 슬플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건 그냥 너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어쨌든 그 자신이 생각하는 거를 말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되게 좀 효능감 있다고 생각을 해요.	v							자녀의 감정 수용	심리적 안정	공통범주 안정과 소통
어쨌든 내가 지랄하는 거니까 내가 화내는 거를 보였으니 제가 저런 방식으로 화를 내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럴 때 부끄럽다.	v	v	v	v	v	v		부모의 정서적 안정		
엄마의 상처인 것 같아요. 부모의 상처.... 부모의 상처로 인해서 그니까... 저는 자책을 좀 많이 하는 엄만데.	v	v						부모의 자기 회복 (부모의 자신감)		
아이를 다루는 스킬과 아이의 감정을 좀 알아주는 스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v		v	v				의사소통 스킬	의사 소통	
소통도 있어야 되고 충돌도 있지만 그것도 잘 해결하면 되는 것 같아요.		v						부모 간의 의사소통		
예를 들어서 아기 때부터 OO이한테 항상 의견을 물어봐요				v	v	v	v	자녀의 의견 존중		
'와, 나 아기 나 봤어. 너무 좋다. 이렇게 큰 아기도 나오네.'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도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음... 내 새끼' 막 이렇게 해줬거든요.		v						자녀에 대한 애정 표현	애정 표현	공통범주 애정 표현과 자원

잘하고 있는 거요? 먹는 거 (먹는 거) 어, 먹는 거는 (잘 챙겨주세요?) 큰아이, 큰아이 작은 아이의 이유식, 큰 아이도 이유식 사 먹은 거 한, 진짜 밖에 나가서 급했을 때 한두 번? 작은 아이도 그랬고요. 먹는 거는 잘 해서 잘 챙겨줘요.			v					음식을 통한 애정 전달		
그런 부분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 그리고 뭐 입양 사실이 뭐지 오픈이 되든 이려든 되든 이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	v							유연성		
그렇게 부모가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야 재 탓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그 시선을 바꿔야 되는 게 입양을 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그 시선부터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v	v	v					책임감 <약속 이행>	심리적 경제적 자원	
경제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들과 그 부모의 효능감도 있을 거고 유능함도 있을 거고...	v					v	v	경제적 안정		
전 세 시간 마다 분유를 주면 되는구나. 근데 분유 먹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해야 되는 건가? 이거 어떻게 이게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진짜 정말, (세밀한 거) 정말 몰랐던 거죠. (교과서에도 없는 거) 근데 나중에 봤더니 ‘뽀뽀뽀 119’ 라는 책에는 다 나와 있더라구요.			v	v	v	v		육아 지침의 학습	지침 학습	공통범주 지침학습
그 OO이가 6살 때 그것도 되게 궁금한 거긴 한데 OO이랑 XX이랑 입양을 말하는 시기가 되게 틀리더라고요 XX이 그러니까 둘째 8살 아이는 올(해) 1학년인데 올 초에 내가 버려줘서 너무 속상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v	v	v				v	입양 사실 소통	입양 소통	
입양 모임이 아니더라도 입양 그게 정말로 진짜 많은 그것 때문에 다 공부하시고 그런 거 같아요. 서로 얘기하시고 얘기하시다가 성장하고 공부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계속 공부 쪽으로 가시고						v	v	입양 가족과의 교류		입양 특수범주 입양 소통과 교류
생부의 자료... 내가 물어봐요. 엄마가 나 엄마 만나기 전 그게 궁금하다고 근데 나는 아는 게 없는 거야. 근데 그 이전 선생님이랑 복지사 선생님이랑 그때 주고받을 때 서류를 봤어요. 친모가 이거 이거 이렇게 딱 한 장이었어요.			v					생부모 정보 전달	생부모 교류	
우리 아이도 한 번 정도는 보지만 두 세 번 연락하는 건 좀 싫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막 연락하고 그러면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준비 혹은 준비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해요.						v		생부모 교류 관련 교육		



[그림 1] 축코딩 결과 패러다임 분석

[Fig. 1] Analysis of Axis Coding Result Paradigm

하위 범주 수준에서 패러다임 분석 결과를 음미해 보면 난임으로 인해 자녀를 입양한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중심현상으로 애정 표현과 심리적 경제적 자원의 제공이 있으며 이러한 중심 현상이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자녀와의 안정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에는 중재조건으로 첫째 육아지침을 학습하는 것이 있으며 둘째 입양 사실에 대한 소통과 생부모와 교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난임으로 인한 입양이 이루어진 가정에서 부모-자녀 관계 적응을 돕는 일은 깊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자녀의 측면에서 보면 생부모가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돌보아 주기로 한 사람과 잘 적응하는 일과 관련된 일이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생물학적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자녀를 어떻게 잘 기를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주는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론의 일종인 근거이론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난임으로

입양을 결정한 어머니가 양육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패러다임 분석과 축코딩 결과에 따르면 중심 현상으로 애정 표현과 자원이라는 범주가 확인되었고 이 범주의 하위 범주는 애정 표현과 심리적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범주가 확인되었으며 애정표현 하위 범주에는 자녀에 대한 애정 표현과 음식을 통한 애정 전달 개념이 확인되었고 심리적 경제적 자원에는 유연성과 책임감 및 경제적 안정 개념이 확인되었다. 도출된 결과를 음미해 보면 난임 입양 어머니들에게 양육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는 중심 현상에는 자녀에게 애정을 표현해 주고 자원을 제공해 주는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심 현상의 결과로는 안정과 소통이라는 범주가 확인되었고 하위 범주는 각각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이었다. 심리적 안정을 구성하는 개념은 자녀의 감정 수용, 부모의 정서적 안정과 부모의 자신감이었으며 의사소통을 구성하는 개념은 의사소통 스킬, 부모 간의 의사소통 및 자녀의 의견 존중이었다.

이러한 중심현상과 결과의 중재조건 1은 육아지침의 학습이었는데 이 범주는 단일 개념 단일 하위 범주로 이루어진 유일한 범주였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책을 통해 학습해서 양육 효능감을 느낀다는 내용이 다른 개념들과 구분된 습득 양식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재조건 2는 입양 소통과 교류 범주가 확인되었으면 하위 범주에는 각각 입양 소통과 생부모 교류가 확인되었다. 입양 소통 하위 범주에 속하는 개념에는 입양 사실 소통과 입양 가족과의 교류가 생부모 교류 하위 범주에 속하는 개념에는 생부모 정보 전달과 생부모 교류 관련 교육 개념이 확인되었다.

Brodzinsky는 입양을 통해 불임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여전히,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헌신하는 능력이 불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의 완전한 해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문제를 공개적이고 정직하게 적절하게 마주하지 못하는 것은 수많은 입양 이론가들과 임상 의들에 의해 입양 이후 양육 문제와 가족 갈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난임 입양 부모의 효능감 요인으로 입양 소통과 생부모 교류 요인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입양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또한 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입양아동은 입양모-자녀간 의사소통의 개방여부에 따라 입양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입양모-자녀간 일반 의사소통의 개방성이 높은 집단에서 사회성과 학업 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9]. 또한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입양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입양관련 의사소통의 개방성이 중요하고 보고되었다. 즉, 입양 의사소통의 개방성은 아동이 입양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장려하는 정도를 의미한다[20]. 박미정의 연구에 의하면 입양모-자녀간 입양에 관한 의사소통의 개방성이 높은 집단은 우울불안이 낮고 학업수행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9].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 결과에서 의사소통 하위 범주가 양육 효능감에 주요 요인으로 확인된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 하겠다.

입양부모는 아동이 입양됨(being adopted)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 이 외에도 입양부모는 아동이 친부모에 대해 갖는 감정, 친부모를 찾고 싶어 하는 욕구 등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다루어 주어야 하는 과제를 가진다. 청소년의 경우 입양 관련된 의사소통의 개방성은 입양 정체성을 찾고 달성하는 과정을 촉진하고 간접적으로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실제로 입양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의 질은 청소년의 입양정체성 발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는 본 연구에서 생부모 교류와 입양 소통이 중요 요인으로 확인된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중심현상과 결과 중재조건 1까지는 생물학적으로 자신의 친생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 효능감과도 공통적인 것일 수 있는 요인들일 것이다. 특히 양육 효능감에 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에는 양육에 필요한 효율적인 지식을 갖는 것,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자녀와의 의사소통 능력 등이 관련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22] 이러한 요인들은 본 연구에서 책 등의 매체를 통해 양육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애정 표현과 음식 제공으로 건강하게 기르고 건강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된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Bandura의 자기 효능감 이론에 입각하여 제작된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척도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 그 요인들에는 자녀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능력, 어머니의 바램을 이해시키는 능력, 공동의 관심사에 주의를 함께 기울이는 능력, 자녀와 상호작용하고 자녀를 즐겁게 하는 능력, 자녀가 즐거워하는 활동을 아는 힘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24]. 여기에 제시된 요인들에서도 자녀와의 의사소통과 자녀를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는 것과 관련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존의 연구 결과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선행 연구에서 간략하게 3-5개의 요인으로 제시되던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세부적인 16개의 요인으로 상세하게 확인하였다는 데 있다. 또한, 여기에는 난임으로 인한 입양을 한 어머니에게 특정한 네 개의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또 다른 하나의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인터뷰 대상자가 특정 기관의 교육을 받은 대상들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며 이러한 점은 입양 부모 교육 장면에서 존재하는 첨예한 입장 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초기의 연구로서 중요성을 갖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어떠한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육도 받지 않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 혹은 입장차를 고려한 대상자의 비율을 고려한 후속 연구 등이 이루어져야 입장 차를 조율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연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1] Helen Noh, M. W. Kim, S. Y. Cho, Child Welfare, Hak Ji Sa, (2021)
- [2] S. H. Lee, D. K. Choi, K. J. Kang, H. Kim, A Family issue & Welfare, Dae Wang Sa, (2004)
- [3] www.kadoption.or.kr/board/board_list.jsp?listSize=10&bcode=06_1&category=%ED%86%B5%EA%B3%84&pageNo=1, Jan 15 (2022)
- [4] Rosenberg, E. B., The Adoption Life Cycle, Sin Jeong, (2007)
- [5] E. M. Kang, A Study on Psychological Experiences of Adoptive Mothers in Adoption Disclosure Process: Focused on Their Adopted Children in Early Childhood, Baekseok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21)
- [6] T. S. Bai, Requirements for successful adoption, Kyung Nam University Press, (2013)
- [7] Y. H. Park, D. M. Shin, An Exploratory Study on Adoptive Attitude, Motivation, and Adoptive Case Experience of Pre-adoptive Parents,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 (2017), Vol.24, No.3, pp.55-84.
Available from: <https://www.dbpia.co.kr/pdf/pdfView.do?nodeId=NODE07246034>

- [8] Y. J. Bae, A. R. Kim, S. Y. Song, J. S. Kwon, *Caring Vulnerable Classes Customized Childcare Support Plan(II): Focusing on Adopted Childre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6)
Available from: https://kicce.re.kr/main/board/view.do?menu_idx=23&manage_idx=32&board_idx=28521
- [9] J. Y. Bae, S. H. Lee, *The 4th Basic Plan for Healthy Families from the Perspective of Adopted Families*, 2021 Spring Joint Conference of Association of Families and Better Life, (2021), Mar 29; Online, Korea
- [10] C. S. Jang, J. Y. Bae,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Adopted Families in Daejeon and the Development of Family Support Services*, Daejeon: Daejeon Development Institute, (2016)
- [11] S. R. Jeong, *The meaning of adoption law revision: comparison 'Special adoption law made in 1967' and 'Special adoption law made in 2012'*, *Minjok Yeonku*, (2016), No.65, pp. 46-62.
UCI: I410-ECN-0102-2016-300-000704207
- [12] J. Y. Ahn, *A study on the Problem Behavior change of child in adopted family by family Art Therapy*, Kyonggi University, Master Thesis, (2009)
- [13] M. H. Koo, *Open Adoption: Analysis of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onflicts Experienced by Adoptive Par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06), Vol.27, No.3, pp.117-133.
- [14] O. S. Kim, *A Study on the Education of Adoption Parents in Korea*, 2016 Spring Joint Conference of Association of Families and Better Life, (2016), Mar 21; Anseong, Korea
- [15] O. S. Kim,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Adoption Experience of Infertile Women*, *Journal of Family and Counseling*, (2012), Vol.2, No.2, pp.49-73.
Available from: <https://scholar-kyobobook-co-kr-ssl.openlink.ssu.ac.kr:8443/article/detail/4050025442170>
- [16] Priscilla K. Coleman, Katherine H. Karraker,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998), Vol.18, No.1, pp.47-85.
DOI: <https://doi.org/10.1006/drev.1997.0448>
- [17] M. J. Kim, *Influence of Foster Parents' Parenting Efficacy on Rear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009), Vol.14, No.4, pp.281-292.
UCI: I410-ECN-0102-2012-590-001100510
- [18] Guba, E., Lincoln, Y., *Naturalistic Inquiry*, Sage Publication, (1985)
- [19] M. J. Park,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pted Children in Non-traditional Adoption of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2009), Vol.40, No.3, pp.69-98.
UCI: I410-ECN-0102-2012-340-000139184
- [20] Brodzinsky, D. M., *Family structural openness and communicative openness as predictors in the adjustment of adopted children*, *Adoption Quarterly*, (2006), Vol.9, No.4, pp.1-17.
DOI: https://doi.org/10.1300/J145v09n04_01
- [21] Ranieri, S., Ferrari, L., Danioni, F. V., Canzi, E., Barni, P., Rosnati, R., & Rodriguez, M. R., *Adoptees facing adolescence: What accounts for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Adolescence*, (2021), Vol.89, pp.10-17.
DOI: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21.03.005>
- [22] H. S. Choe, O. B. Chung, *The Development of an Inventory for Measuring the Parenting Self-Efficacy of Korean Mothe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01), Vol.22, No.3, pp.1-15.
Available from: <https://www.childstudies.org/upload/pdf/31200684.pdf>
- [23] Bandura. A., *Self-efficacy mechanisms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y*, (1982), Vol.37, No.2, pp.122-147.
DOI: <https://doi/10.1037/0003-066X.37.2.122>
- [24] S. J. Seo, *Maternal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quality of parenting*.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004), Vol.42, No.4, pp.11-27.
Available from: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0411922318719.pdf>